

CHANNEL

Vision 2025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Vision 2025를 향해!

삼정 KPMG

'Vision 2025! - No.1'을 향해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삼성KPMG는 Vision 2025를 향한
자신감과 도전으로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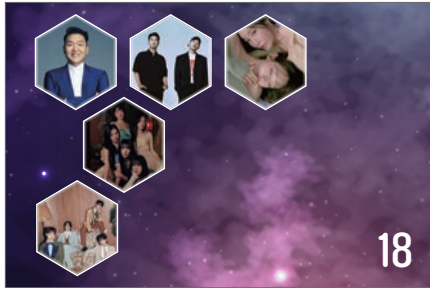
4월 25일에 열린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에서는
우리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Vision 달성을 위한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황제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간다.”

삼성KPMG는 People First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 Vision 2025 달성을 이룰 것입니다.

CONTENTS

Vol
256



건강한 성장

04 FY2024 삼성KPMG

‘Vision 2025: To Be No.1’ 힘찬 의지 다져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06 Emerging Trends

글로벌 공급망 경영진이 본 공급망의 미래

08 Market Reader

반도체 기업 C-level의
AI·모빌리티 시장 공략 전략은?

10 Team Story

튼튼한 미국 세무 파트너, 미국 세무팀

12 Client+

AI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주)엠마헬스케어

14 Expert’s Advice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분석과 전망은?

16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8 55주년 특집 I

‘People First Concert!’ 즐길 준비됐나요?

20 55주년 특집 II

함께 만드는 축제!
“우리 무대, 기대해도 좋아요!”

22 삼성인터뷰

‘FY2023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24 삼성동호회자랑

바닷속 힐링 그 자체!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KPMG Diving Club’

26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동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

30 心 Care

함께 또 같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심리적 자아확장

32 Samjong News

변영훈·김이동·박상원 대표 승진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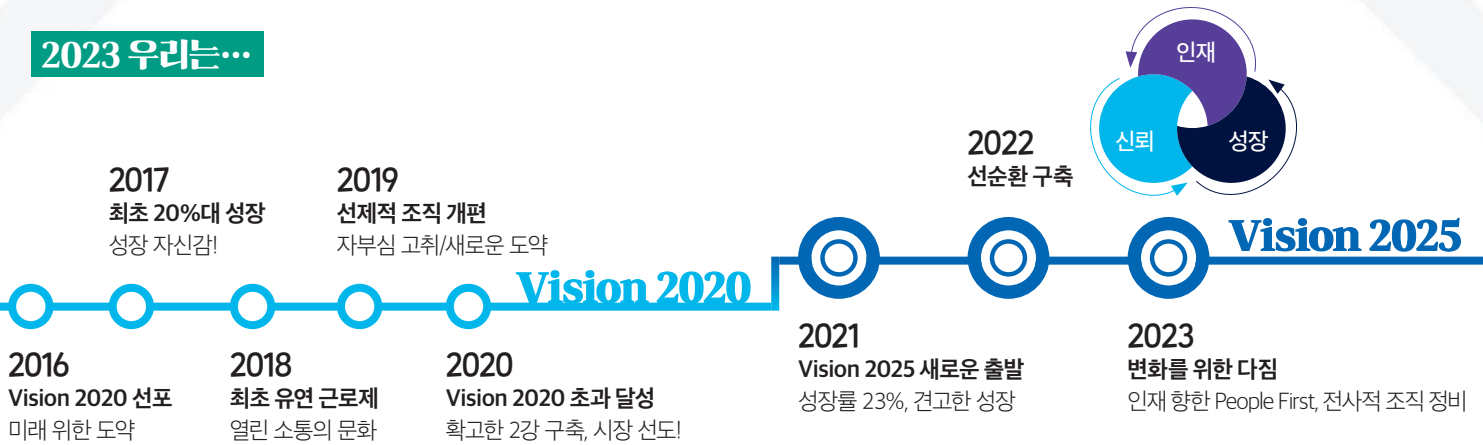
‘Vision 2025: To Be No.1’ 힘찬 의지 다져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지난 4월 25일, 삼정KPMG의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됐다. 법인의 Manager 직급 이상 임직원 약 2,000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난 사업연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 상황을 점검한 후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FY2024 사업 전략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 현장, 김교태 회장이 FY2024에 삼정KPMG가 나아갈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전했다

2023 우리는...



Vision 2020 성공적 달성

Vision 2025를 위해 함께 노력

대내외 힘든 상황 속 견고한 성장, 성찰과 함께 미래를 향한 의지 다져

삼정KPMG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루었다. FY2022까지 7년간 이어온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하면 다소 아쉬움도 남았지만, 감사부문과 세무부문은 굳건한 성장을 지속하며 법인 성장을 이끌었고, 재무자문부문과 컨설팅부문도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발전을 위한 전략을 새로이 하며 미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잡았다.

FY2023에는 인재를 향한 진심을 담아 ‘People First’ 문화를 재정비하는 의미 있는 해였다.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좋은 변화를 목표로 업무 방식의 혁신과 체계적인 성장 지원, 소통과 즐거운 법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와 연계된 차별화된 최고의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열린 ‘FY2023 포상 시상식’



힘찬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가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회 공헌 및 기부 활동 등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People First 2024 &

Vision 2025 달성 위한 의지와 자신감!

지난 ‘Vision 2020’을 초과 달성한 삼정KPMG는 ‘Vision 2025’ 달성을 향한 막바지 여정에 나섰다. 김교태 회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경쟁이 과열된 환경 속에서 FY2023은 아쉬움을 남긴 해였지만, Vision 2025 달성을 위해 FY2024는 우리가 더욱 강력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며, ‘To be Similar, be Different’의 자세로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Go-To-Market으로 한 발 더 뛰며 최상의 고객 만족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삼정KPMG는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위기 속 기회를 찾아 다시금 건강하고 높은 성장으로 가속해 나갈 것이다. 인재를 향한 확실한 변화, ‘People First 2024’를 강화하여 모두가 체감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이루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추가로 구축하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즐거운 ‘55주년 기념 People First Concert’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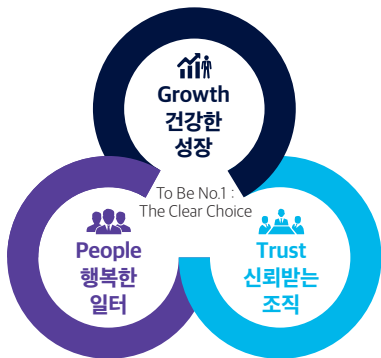
노력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을 찾아가려 한다. 아울러 든든한 성장 지원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으로 최고의 보상을 이루는 등 인재 존중 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고객 만족을 이끄는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고, 전문가적 윤리의식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며 신뢰하는 전문가로 나아가려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중심 전략으로 고객보다 한발 앞선 시각으로, 새로운 시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AI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미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AI 기술 관련 솔루션을 제안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선도하며 공시 의무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Vision 2025’ 달성을 2년 남겨둔 지금, 삼정KPMG는 치열한 경쟁과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 불구하고, 업의 본질에 충실하며 한마음으로 협업하고 절실하게 노력하여, ‘Vision 2025’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뤄온 자랑스러운 성취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Vision 2025 - 우리의 모습

최고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건강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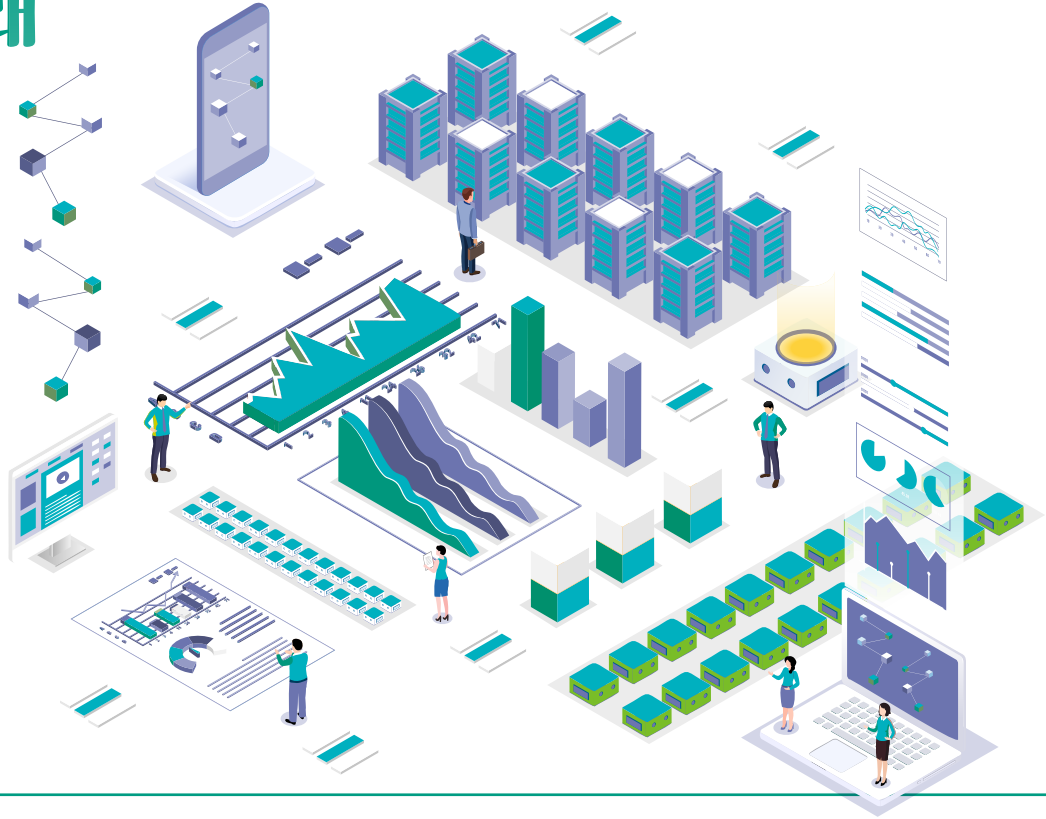


인재들이 존중 속에서 꿈을 펼치며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신뢰와 지속가능가치로 사회에 공헌하는 신뢰받는 조직

글로벌 공급망 경영진이 본 공급망의 미래

기업이 직면한 지금 이 시대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매우 도전적이다. 최근 몇 년간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불안, 극심한 기후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경영진이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KPMG는 글로벌 공급망 경영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출된 결과를 ①향후 1~2년 내 주목할 이슈와 ②향후 3~5년 내 주목할 이슈로 나눠 알아보자.



① 지속가능한 공급망, 로봇 및 자동화, 미래의 노동력

기업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또는 프로그램은 이제 ‘필수 역량(Must have)’이 됐다. 따라서 공급망 역시 기업의 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책임 있는 소싱 전략 구현, 공급망 실사를 통한 ESG 규제 준수 인증, 탈탄소화 노력 지속, 순환 경제 기반 공급망 설계,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기술 활용 기반 ESG 성과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조·유통·기술·에너지·유틸리티·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공급망을 담당하는 경영진 및 전문가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

운데, 응답자 중 37%는 최근 창고 운영을 위한 노동력을 첨단 로봇 또는 자동화를 도입하여 대체했다고 답했다. 즉, 기업은 미래의 공급망을 설계하기 위해 자동화·고도화된 로봇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신기술을 연결해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자동화가 인간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래의 공급망이 로봇과 자동화에 기초를 둘 것이라 전망되지만,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유연한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술 도입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혁신을 주

도하며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공급망 전략 중심에 사람을 두되, 인간과 디지털이 융합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②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산업 부문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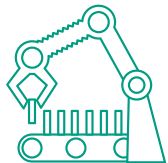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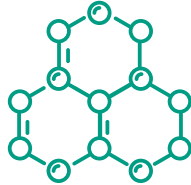
물류 분야 내 분산원장기술 및 디지털 화폐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유망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화폐가 공급망 관리 분야에 도입될 경우, 실시간 정보·가시성·제품 진위 여부 측면 추적성이 강화되고, 지급결제 및 국경간 무역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의 미래 6가지 이슈

향후 1~2년 내 주목할 변화

■ 지속가능한 공급망

ESG 역량 또는 프로그램은 '필수 역량(Must Have)'으로 자리매김. 따라서 기업은 책임 있는 소싱 전략 구현, ESG 규제 준수 인증, 탈탄소화 노력 지속 등 수행 필요



■ 첨단 로봇 및 자동화

기업은 미래의 공급망을 설계하고자 자동화·고도화된 로봇 도입 고려할 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와 신기술을 연결해 공급망 효율성 증진 추구

■ 미래의 노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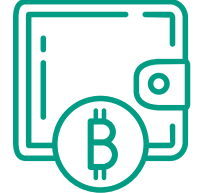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유연한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조직의 공급망 전략 중심에 인간과 디지털이 융합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향후 3~5년 내 주목할 변화

■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화폐

공급망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화폐 도입 시, 공급망 내 실시간 정보·가시성·제품 진위 여부를 제공하기 위한 추적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메타버스

공급망 관리를 위해 메타버스가 도입될 경우, '실제 참여와 학습 경험 → 공급망 내 디지털 트윈 활용 → 물리적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 단계로 적용될 전망

■ 산업 부문별 변화

헬스케어·생명과학 기업은 정밀의료 대응하고자 고도화된 콜드체인 및 의약품 공급망을 갖춰야 하고 항공·방위 기업은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초연결 체계가 필요



Source: KPMG International "The future of supply chain", 삼성KPMG 경제연구원

본 설문조사에서 94%의 응답자는 향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등, 공급망 관리 경영진은 메타버스 적용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도입 시 '실제 참여와 학습 경험·공급망 내 디지털 트윈 활용·물리적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의 프로세스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관리 경영진은 주요 산업 부문별 변화를 통해 공급망 전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헬스케어·생명과학 기업은 부상하는 정밀의료에 대응하고자 고도화된 콜드체인 및 의약품 공급망을 갖추는 동시에, 증가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DaaS(Data-as-a-Service)와 같은 새로운 공급망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 항공 및 방위 기업은 지정학적 이슈로 더욱 중요해진 실시간 의사결정을 위해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초연결 체계(Hyperconnectivity)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 관리 경영진이 주목하고 있는 6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봤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로봇 및 자동화, 미래의 노동력 이슈는 향후 1~2년 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산원장기술 및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산업 부문별 혁신은 향후 3~5년 내 큰 폭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6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국내 기업이 선진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 기대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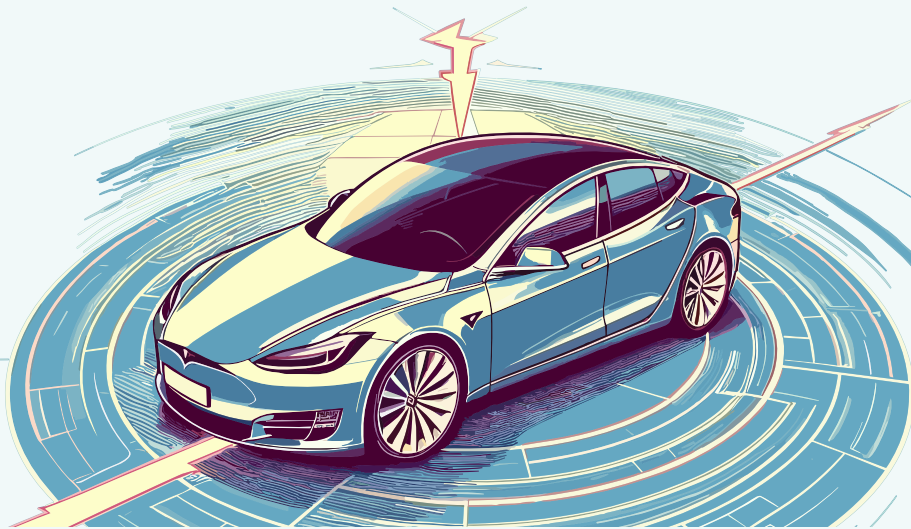


MC3 본부
봉찬식 전무
Tel. 02-2112-7732
E-mail. chansikbong@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반도체 기업 C-level의 AI·모빌리티 시장 공략 전략은?

KPMG 글로벌은 AI 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더욱 각광받는 '반도체 산업'을 지속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 C-level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가운데, 올해 19번째로 '글로벌 반도체산업 전망(2024 KPMG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을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우선순위 전략 과제 중에서 특히 AI(인공지능)와 모빌리티가 집중 조명됐다.



반도체 기업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유망 응용 분야

- #1 자동차는 반도체 회사의 매출 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로 나타남
- #2 AI(인공지능) 시장이 현재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
- #3 마이크로프로세서(AI에 사용되는 GPU 포함)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제품으로 인식

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이슈 및 우선순위 전략

- #1 향후 3년간 반도체 업계 최대 이슈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남
- #2 반도체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는 R&D·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영업, 생산 및 오퍼레이션으로 조사
- TOP 3 반도체 기업의 3대 전략적 최우선 과제로 인력 유치·양성·유지, 공급망 유연성 강화, 생성형 AI 도입이 꼽힘

Source: KPMG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 Survey 2024

이번 반도체 설문조사는 KPMG와 세계반도체연맹(GSA)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46%)과 유럽(24%), 아시아·태평양(21%), 중동·아프리카 및 그 외 지역(8%)의 반도체 리더들이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 리더 85%...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 성장”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경영진들은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경영진 85%는 반도체 산업 전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고, 83%는 자사

매출 증가를 전망했다. 경영진 69%는 자사의 R&D 지출을 전년 대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55%는 인력 증원을 전망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0%로, 전년(44%) 대비 26%p 늘었다.

2024 반도체 매출 동력, ‘자동차’ & ‘AI’

2024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분야로는 ‘자동차’와 ‘AI’가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반도체는 향후 1년간 수익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 최근 전기차,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자율주행, AI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 발전 방향으로 자동

차 산업 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I는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를 이끌 유망 응용 분야로 예상됐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의 56%는 향후 2년 내 R&D·엔지니어링 부서에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봤다. 마케팅 및 영업(49%), 생산 및 오퍼레이션(42%), 고객 지원(35%)에서도 생성형 AI가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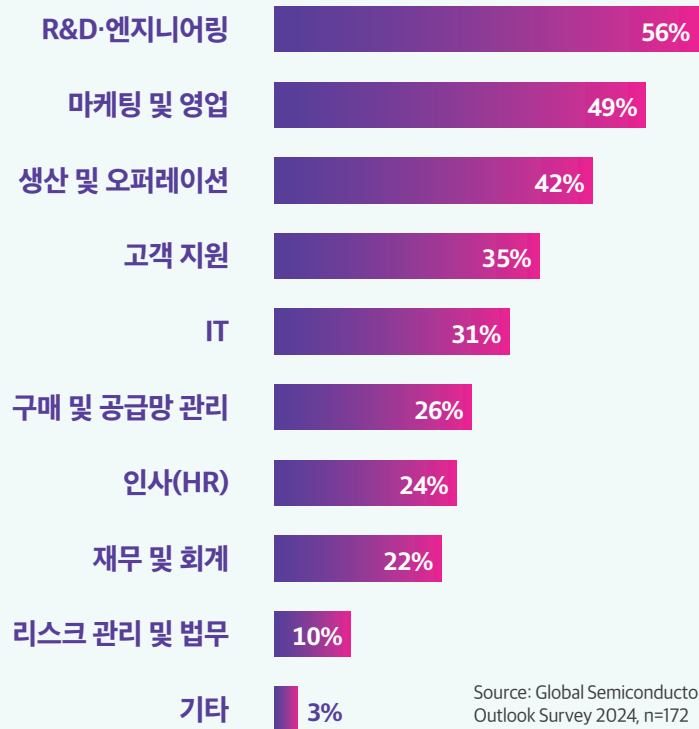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경쟁 심화

빅테크 등 비반도체 기업의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한 응답으로 '인력 확보 경쟁 심화(56%)'가 1위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2위 답변은 '비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출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19%)', 3위 '파운드리 생산능력 제약의 확대(12%)', 4위 '공급망 교란(11%)'이 거론됐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체 반도체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반도체 인재 유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 리더들은 향후 3년간 자사의 최우선 전략 과제 1위로 '인력 유치·양성·유지(53%)'를 삼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경영진 53% "1년 내 공급망 지역 다변화 계획"... 아태 지역 선호

자국 우선주의와 반도체 기술·IP(지식재산권)의 자국 중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공급망 구축 또한 반도체 기업의 주요 전략 과제로 답변됐다. 경영진의 58%는 공급망 유연성 확대를 위해 향후 2~3년 내 공급망의 지역적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주요 희망 지역으로는 한국과

향후 2년 내 생성형 AI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사 내 부서 조직



Sourc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 Survey 2024, n=172
Note: 복수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선호 지역으로 거론됐다.

반도체 산업 리더 10명 중 7명 이상(75%)은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이미 존재하거나, 향후 4년 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앞으로 4년 내 수요 초과로 인한 재고 부족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19%는 AI 등 새로운 기술이 창출하는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생성형 AI의 잠재적 활용 분야 선점이 중차대하다. 또한 AI 도입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AI 거버넌스 수립도 필요하다. 반도체 기업 C-level은 AI 도입에 따른 순기능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

으로 관리하여 고객 신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AI를 필두로 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관리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ICE2본부
한상현 부대표
Tel. 02-2112-0387
E-mail. sanghyunhan@kr.kpmg.com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 미국 세무팀

해마다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법이다. 그만큼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가 중요한데, 이는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 나라는 미국이다. 각 주마다 다른 세법 등 다양한 사례가 많을뿐더러, 개정된 세법에 대한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삼정KPMG는 KPMG 미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세무(US Tax)팀을 운영하며,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에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 세무팀이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CONTACT US

조홍준 (Daniel) 부대표
E-mail. djoe1@kr.kpmg.com
Tel. 02-2112-3793

최준호 상무
E-mail. jchoi97@kr.kpmg.com
Tel. 02-2112-0987

문준석 Manager
E-mail. jmoon10@kr.kpmg.com
Tel. 02-2112-7679

강준혁 Senior
E-mail. jkang19@kr.kpmg.com
Tel. 02-2112-3671

미국 세법, 복잡하고 다양해!

전문가 도움으로 리스크 최소화해야

미국 세법은 전 세계 세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체계 중 하나로, 매우 어렵게 다가온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 투자 및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들이 정확한 세무 자문을 받지 않아 세금 신고 및 납부 누락으로 미국 국세청 (IRS)으로부터 미납 세금 및 관련 이자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스타트업 및 비상장사 투자도 투자 구조와 투자 형태(지분/채권/전환사채)에 따라 미국 세무 및 신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사실 이는 간단한 자문만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세무 전문가들의 시각을 기반한 솔루션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어 능통한 미국 세무 전문가, 실시간 자문도 가능해!

미국에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KPMG LLP(US)의 US International Tax팀의 미국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삼정KPMG에 파견을 나왔다.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삼정KPMG의 미국 세무팀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팀으로 세무 분석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인프라, PE, 채권 등 대미 투자, 미국 펀드 및 기관의 국내 투자, 외국 법인의 미국 사업진출, 인수·합병, 구조조정 관련 세무 자문 및 실사 등 이와 관련된 계약서 법 관련 검토 등 미국 세무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객들에게 시차 문제없이 미국 세무 자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KPMG 미국에 미국 세무 질의를 한 후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삼정KPMG 미국 세무팀에 전화 한 통으로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세무팀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한국 고객들에게는 복잡하고 난해한 미국 세무를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대미 투자 및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 고객들의 세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세무팀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솔루션으로 고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국 세무 파트너로 나아가고자 한다.



미국 세무팀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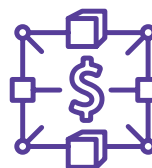


1. 미국 세무신고·납부 용역

- 미국 내·외 법인 (Corporation) 및 파트너십 (Partnership)을 위한 미국 연방세 (Federal), 그리고 주 (State) 및 지방 (Local)세 세무신고 지원
- 미국 연방세 (Federal), 그리고 주 (State) 및 지방 (Local)세 분기별 추정 세금 (Estimated Quarterly Taxes) 산정과 납부 지원

2. 미국 Inbound 및 Outbound 투자 구조 자문 용역

- 미국 채무증권 (Debt)과 미국 지분증권 (Equity) 투자 전반에 관한 자문
- 미국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 (FIRPTA) 관련 자문
- 미국 투자 관련 계약서 (LPA, PPM, Side Letter, Subscription Agreement)의 미국세법 관련 조항 검토
- 미국 회사 및 펀드의 한국 inbound 투자 시 관련 미국 세무 이슈들에 대한 자문 (e.g.,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PFIC), Check-the-box (CTB) Election)



3. 인수합병 관련 세무 자문 용역

- 전반적인 미국 연방세와 주 및 지방세 세무실사 (Tax Due Diligence)
- 인수합병 구조 설정을 포함한 미국 관련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거래 전반에 관한 자문 용역

AI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주)엠마헬스케어

(주)엠마헬스케어는 2017년 9월에 설립된 첨단의료기술 전문 기업이다. 설립 이래, 우수 벤처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차세대 의료기술 기반의 첨단 의료공학을 베이스로 한 전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 엠마헬스케어를 소개한다.



AI 스마트 아기 요람 ‘베베루시’ & ‘요양병원 케어 시스템’

엠마헬스케어의 대표 제품은 산후육아를 위한 AI 기반의 스마트 베이비케어 침대 베베루시(bebeLucy)와 요양병원 케어 시스템이 있다. 먼저, 베베루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아기의 체온, 심장박동, 호흡수 등의 생체신호를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아용 침대다. 특히 얼굴 영상을 통해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카메라 기반 rPPG(remote photoplethysmography) 기술은 비접촉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해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바이탈센싱 분야 최신 기술이다. 국내특허 2건 등록 1건 출원, 미국 특허 2건 출원, PCT 2건 출원을 통해 안전한 지식재산관리도 진행 중이다. 아기에게서 감지되는 생체 데이터는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인증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내는 인공지능 아기 침대에 대한 규격이 부재하여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2024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위한 4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실증의 첫 성과로 최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무상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케어 시스템은 베베루시

병원에서의 의료혜택을 일상에서도!

엠마헬스케어는 차세대 의료기술 기반의 첨단 의료공학을 베이스로 한 전문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허가 사항을 고려하며 의료기술과 헬스케어 기술을 동시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병원에서 누리던 다양한 의료 혜택 서비스들을 일상에서 활용하도록, 사용성이 일반화된 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음성, 영상, 생체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유아, 시니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우울증 진단 및 멘탈 케어, 인지장애 진단에 대한 인공지능 진단을 수행하고

있고, 디지털치료제 및 전자약 개발 및 적정 연동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한편, 엠마헬스케어는 손량희 대표를 비롯해 의료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산학협력 및 대외협력체 모두 의료공학과 인공지능 필드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허가 임상까지도 연계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기술 개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의 기술력이 병원용 침대케어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으로, 2023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중순까지 15만 불을 받아 미국 현지 샘플 평가를 진행하며, 연간 5,000~10,000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임상전문가가 정밀 제어를 통해 욕창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침대 낙상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품관리처) 의료기기 인증을 진행 중이며, 생산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수상을 통해 기술력 입증!

엠마헬스케어의 기술력은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퍼스트뱅크’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입증됐다. 사업 초기인 2017년에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기술지향 기업가로 발을 내디뎠다. 또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2, 2023, 2024에서 3년 연속 인공지능 헬스케어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외에도 2023 한국전자전(K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고, 2022년 IT 산업 발전 공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2021 시니어기술 개발 선도 기업에 선정됨은 물론, 2022년 영국 스타트업 매거진 ‘글로벌 Top 10 스타트업’에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연구 협력 진행, 인류의 삶 향상시킬 것!

인공지능 알츠하이머 환자 감정평가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캐나다 기업과 글로벌 R&D를 시작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국가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아시아 데이터뿐 아니라 북미 임상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영국,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고도화 및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엠마헬스케어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와 공학을 접목한 인공지능 혁신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1 시 스마트 요람 베베루시
- 2 요양병원 케어 시스템
- 3 캐나다 기업 루시드와 알츠하이머 환자 감정평가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 위한 협약 진행
- 4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퍼스트뱅크’ 기업, 엠마헬스케어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분석과 전망은?

KPMG는 'Venture Pulse'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AI 투자 붐과 관련된 이슈와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I를 비롯해 클린테크·헬스테크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VC 간 협업 과정에서의 투자 기회 등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고, 2024년 벤처투자 업계의 전망과 더불어,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Q 지난해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어떠하며, 특징이 있을까요?

2023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3,440억 달러, 37,808건으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밸류에이션 우려 지속으로 2023년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5%, 27% 감소했습니다. '벤처성장' 단계 투자 규모 중앙값은 122만 달러로 2021년(250만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벤처투자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메가 딜이 줄고 다운라운드*가 늘었으며, 회수 시장 회복 이전까지 다운라운드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기업의 수익성과 비용 절감 등에 민감해지며,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3년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은 19건으로 전년(48건)의 40% 수준이며, 다운라운드 비중은 16%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반 기업과 유니콘의 VC 활동 저조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CVC 투자는 2023년 1,7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고, 딜 건수(8,820건)는 동 기간 34% 감소했습니다. 유니콘 VC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845억 달러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거래 건수(389건)는 역대 최고치인 2021년(1,032건)의 30%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투자 붐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 섹터가 전체 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AI와 관련된 B2B, 소비자 및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eal Advisory9 정도영 상무

Tel. 02-2112-0184
E-mail. doyoungchung@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월 발간된 KPMG '글로벌 벤처투자, 2023년 동향 분석과 전망(Venture Pulse Q4 2023)' 및 4월 발간된 '글로벌 벤처투자, 2024년 1분기 동향 분석과 전망(Venture Pulse Q1 2024)'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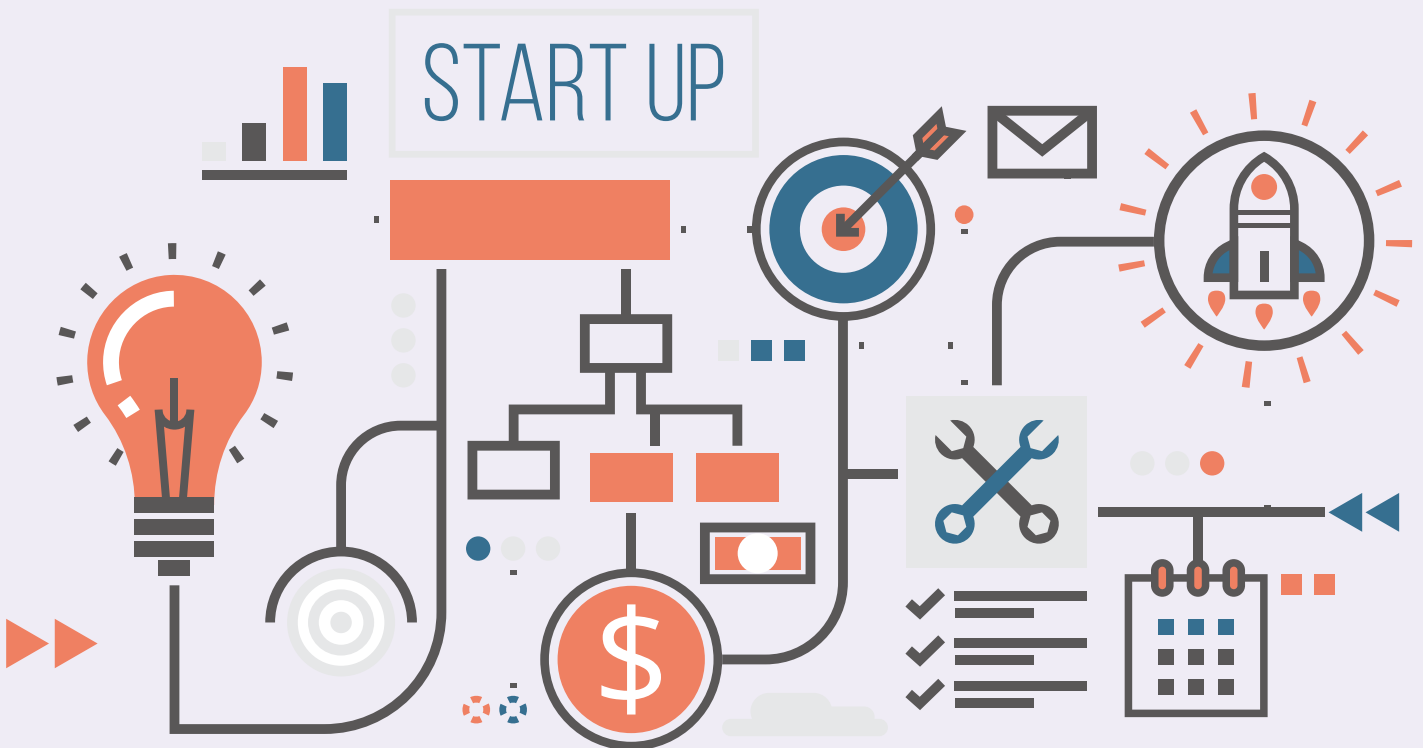


Q 올해 글로벌 벤처투자 전망은 어떠한가요?

고금리 지속과 IPO 위축, 지정학적 이슈 등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2024년 글로벌 벤처투자 회복이 제한되며, 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벤처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운영 방식을 재편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 조성된 벤처펀드의 미소진 투자 자금(드라이파우더) 수준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AI와 헬스테크, 클린테크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주지역은 대선과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등 혁신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4분기 중 10억 달러 이상 메가딜 10건 중 6건이 미국 소재이며, 이 중 AI 기업인 Anthropic(20억 달러)과 Metropolis(17억 달러)가 성공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며, 미국 벤처투자 업계의 드라이파우더 규모는 2023년 말 3,110억 달러로 역대급 수준입니다. 유럽의 경우 넷제로 목표로 따라 에너지 및 ESG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AC 및 VC와 CVC 간 협력 투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인도와 일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잠재력 및 IT 생태계로 투자자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AI 및 헬스케어, 자동화 기술, 생명공학과 ESG 솔루션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에 따른 VC 생태계가 도약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기업 계열 CVC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Q AI 투자 붐 속에서,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AI 투자 비용과 상용화 여부, 법적 리스크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AI FOMO**에 따른 소위 '거품' 논란이 일부 제기 중이며,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AI 솔루션은 자율주행차부터 애그테크(AgTech)***, 클린테크와 바이오테크까지 모든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투자 비용 및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AI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AI의 보안성, 신뢰성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관리 역량,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국 규제 변화와 통상 마찰 가능성 관련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라운드(Down round) :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투자 때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딜 or 자금 조달 라운드

**AI FOMO(Fear Of Missing Out) : 기업 등이 AI를 채택하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애그테크(AgTech) :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업을 첨단화하는 기술이나 관련 산업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최근 구글에서 인터넷 쿠키를 올해 하반기까지 없앤다고 하여 이슈이다. 디지털 마케팅을 해온 이들은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찾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새롭게 탄생한 용어들을 만나보자.

쿠키리스(Cookie-less) 시대의 도래!

쿠키리스(Cookie-less)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쿠키리스는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쿠키(사용자 인터넷 정보)의 제3자 제공 지원을 중단하는 건데요, 이에 온라인 마케팅 시장 내 쿠키리스 시대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쿠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는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 만들어지는 정보가 담긴 임시 파일을 의미해요.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웹이 사용자를 기억함으로써 유저의 로그인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광고주들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수집된 제3자 데이터(Third-Party Data)인 쿠키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왔어요. 때문에 서드파티 쿠키 제공이 사라질 경우 온라인 매체들의 전반적인 타겟팅 능력 하락이 예상돼요. 또한, 광고주들이 타겟팅 고도화가 가능한 제로파티, 퍼스트파티 쿠키(First-Party Cookie)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한편 미국 3위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아마존(Amazon)은 쿠키리스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애드테크 프로젝트인 ID++(아이디 플러스플러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정부,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알리쉬법' 개정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테무와 쉬인 사용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반품 거절과 배송 지연 등 관련 불만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익스프레스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고,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하다고 해요.

따라서 정부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보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앞 글자를 따 이른바 '알테쉬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55주년 특집 I

'People First Concert!' 즐길 준비됐나요?

18

55주년 특집 II

함께 만드는 축제!

“우리 무대, 기대해도 좋아요!”

20

삼정인터뷰

'FY2023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22

삼정동호회자랑

바닷속 힐링 그 자체!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KPMG Diving Club'

24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동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

28

心 Care

함께 또 같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심리적 자아확장

30

Samjong News

변영훈·김이동·박상원 대표 승진 외

32

55th ANNIVERSARY

‘People First Concert!’ 즐길 준비됐나요?

‘People First Concert’가 열리는 5월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번 콘서트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과정의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행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사이



다이내믹 듀오



다비치



레드벨벳



하이라이트

5월 16일 KSPO DOME에서 열릴 ‘People First Concert!’
오는 5월 16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People First Concert’가 개최된다.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Big 이벤트로, 국내의 유명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 중 하나인 KSPO DOME에서 열려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오후 3시부터 사전에 알림톡으로 받은 QR코드 확인을 통해 입장권을 교환받을 수 있고, 좌석은 원하는 구역에 선착순으로 배정받는다. 또한 티켓부스에서 받은 푸드쿠폰으로 푸드존(Food Zone)에 마련된 샌드위치와 음료 그리고 푸드트럭의 다양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펀존(Fun Zone)에 준비된 포토부스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해머 게임, 농구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한편, 행사 중에는 푸짐한 경품이 준비된 럭키드로우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경품은 구성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가장 선호하는 전자기기, 외식 상품권, 스파 이용권 등 구성원들이 직접 택해서 모두가 선호하는 경품으로 준비된다.

삼정인들의 무대, 실력과 감동까지 기대해!

이번 공연은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무대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임직원의 무대, 2부에서는 K-Pop 스타들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임직원 합창단과 KPMG 'S Got Talent 무대가 펼쳐진다. 50주년 기념 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임직원 합창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줄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들이 직접 고민하고 선정한 곡들로 합창이 이뤄져 더욱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삼정인들의 다재다능한 끼를 뽐낼 수 있는 KPMG's Got Talent 무대도 마련됐다. 삼정인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뽐내는 자리로 28개 팀이 응모해, 임직원들의 투표로 최종 본선에 오를 Top4를 선정했다. **최종 Top4에는 Band KPMZ(노진서 대리, 이경희 대리, 정시영 S.Analyst, 김동진 Senior, 강범준 S.Analyst), 고동협 Analyst(Deal Advisory3), 연구진 Manager(CM1), 김유림 Analyst(Deal Advisory1)가 선정됐다.** 이들이 영상으로 선보인 예선과 달리, 본선 무대에서는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K-스타들의 총집합!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다비치&다이나믹 듀오&하이라이트&레드벨벳&싸이 콘서트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펼치는 공연이다. 이번 행사에는 발라드, 힙합, K-Pop 아이돌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듀오 **다비치**가 무대를 오른다. 이어 최근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가 50주년에 이어, 55주년 콘서트에도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K-Pop 인기 아이돌 그룹 두 팀의 공연도 마련됐다.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뛰어난 퍼포먼스와 세련된 음악으로 인기를 모은 **레드벨벳**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지난 50주년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싸이**는 다시 한번 KPMG Korea 5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 어느 공연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People First Concert!'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공연을 기다리며, 체력 관리는 필수이다!

55주년 People First Concert! 안내



People First Concert!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KSPO DOME(올림픽 체조경기장)
참가 대상 삼정KPMG 임직원 및 가족, 지인 등
***티켓버스 오픈 - 오후 3시, 공연장 입장 - 오후 5시~**

1부 18:00 ~ 19:40

기념식
 임직원 합창 공연
 KPMG's Got Talent
 성악 축하 공연
 KPMG's Got Talent 시상식

2부 19:40 ~ 22:00

다비치
 다이나믹 듀오
 하이라이트
 레드벨벳
 싸이

함께 만드는 축제!

“우리 무대, 기대해도 좋아요!”

People First Concert는 특별하다.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5월 16일에 열리는 People First Concert에 임직원 합창단은 물론, KPMG's Got Talent로 재능과 끼를 뽐낼 무대가 마련된 것! 이번 호에서는 미리 이들을 만나본다.



김주희 Associate (IM4)

하나의 목소리, 전율의 순간을 선사할게요!

‘살면서 체조경기장 무대에서 볼 일이 언제 있겠어?’라는 동기의 말에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나아가 합창단원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이를 관객분들과 공유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연습 중 하나 된 목소리가 느껴진 순간 합창단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진정한 합창단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의지하며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자체가 멋진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감동을 현장의 관객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빈 Associate (Tax6)

감동의 노래 기대해주세요!

평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합창단원 모집 첫날 바로 지원했어요. ‘일하는 곳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다니~’, 합창단 모집 메일을 보고 정말 신났던 것 같아요! 하하. 특히, 실제로 합창단 연습을 통해 다양한 본부분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하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 합창단은 감동적이고, 심장을 울리는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가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시고,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합창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무대 선사하겠습니다. 그럼 콘서트 날 뵙겠습니다!

♪ 임직원 합창단 인터뷰 ♡



장재형 Manager (Deal Advisory6)

평가보다는 즐겁게 즐겨주세요!

50주년 합창단에 이어 55주년 콘서트에도 합창단으로 참여하게 됐네요! 50주년 당시 처음 만난 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멋지게 공연하는 과정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느꼈죠. 이에, 이번에도 주저 않고 바로 참가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곡 중 두 번째 곡이 가장 무대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가사도 좋고, 기획도 좋아서요. 하지만 솔로 파트가 있어 연습 과정이 힘들 것 같지만, 이 곡에서 솔로 파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합창단원들이 함께 내는 웅장한 소리와 조화를 느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임직원들이 모여 준비한 합창으로 실력과 평가보다는 즐겁게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김지훈 S.Analyst (BD&Markets)

여러분들의 눈물을 훔칠 멋진 공연 기대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합창단 경험도 있고,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합창단에 참가하게 됐네요. 무엇보다 다양한 본부원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합창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함께 모여 합창하는 것이 매우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더욱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자 마음먹게 됐어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으로, 곡 선정도 합창단원이 직접 선정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공연으로 관객분들의 눈물을 모두 훔쳐보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화합의 대명사! 우리와 함께 즐겨요!

Band KPMZ - 보컬 노진서 대리 (ITS)

삼정KPMG의 MZ가 모여 만든 청춘밴드 Band KPMZ 입니다. 저는 킬링 Voice 보컬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 외에도 '힐링 Sound 건반-이경희', '밴드 중심 Drum-정시영', 'Number 1 Groove 베이스 기타-김동진', '재간 등이 막내 일렉 기타-강범준'으로 멤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밴드는 먼 훗날 잊지 못할 다시 넘겨볼 수 있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는데, Top4에 선정되도록 투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표에 보답하도록 매 주말을 불태워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그 날만큼은 아무 걱정 말고, 우리들에게 흥을 맡겨주세요. 화합의 대명사 Band KPMZ 무대 주목해 주시고, 꼭 투표해 주세요! People first, we will make KPMG Concert great again!!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대 만들겠습니다!

고동협 Analyst (Deal Advisory3)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무대에 올라 공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다양한 무대에 서기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줄었고, 어느덧 저도 음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KPMG's Got Talent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다시없을 기회라 생각했죠. 사실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Top4로 선정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소중한 한 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무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며보려 합니다. 관객 분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 주세요~!

KPMG's Got Talent TOP4 인터뷰



작은 울림을 선사하는 무대 준비하세요!

연규진 Manager (CM1)

실력과 개성 넘치는 분이 많으셔서 Top4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선정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던 음악과 차츰 멀어져 가는 일상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음악을 마냥 좋아했던 스스로를 잠시 찾아보고자 용기 내어 지원했어요!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거저 없는 모습'을 담고 싶었고,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제가 표현한 바를 공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Top4에 선정돼, 감격스럽네요! 살짝 욕심 낸다면 많은 고민과 연습을 통해 현장에서 임직원분들에게 자그마한 울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무대! 멋진 공연하겠습니다!

김유림 Analyst (Deal Advisory1)

제 유일한 취미가 노래인데요, 직장인이 된 후 조금 더 취미 생활에 진심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 무대에 오를 수 있겠어요! 물론 상금도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요. 하하. 투표 기간 걱정도 많았지만, Top4에 선정되니 정말 기뻐요. 또, 제 동기이자 대학 동아리에서도 함께 활동한 고동협 Analyst와 함께 공연장에 오르게 되어 두 배로 기쁩니다! 응원해주신 우리 팀원분들과 동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공연하고 오겠습니다! 항상 하루하루 멋지게 나아가시는 삼정KPMG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DA1본부 모든 팀원분들과 동기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

‘FY2023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FY2024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우수 인재를 위한 ‘FY2023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법인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뤘은 삼정인들의 노고와 공을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지금부터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한다.

FY2023 삼정KPMG 포상 수상자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휴가
최우수 본부상	본부	Tax3본부	• 탁월한 업무 수행과 새로운 업무 개발, 협업으로 최고의 건강한 성장을 이룬 본부	1,000 만원
우수 본부상	본부 (공동수상)	CM2본부		500 만원
		Deal Advisory8본부		500 만원
Professional of the Year	개인 (공동수상)	허승훈 Director (B&F2)	•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IFRS17 관련 회계 자문 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업무 수입에 크게 기여 • 보험계리, 자산운용, ALM 및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 자기 계발을 끊임없이 실천 행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음	100 만원/3 일
		안세민 Director (Deal Advisory5)	• KPMG Brand Defining Deal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Excellence Value의 실천 • 모든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건설적 소통으로 Courage Value 실천 행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음	100 만원/3 일
	팀 (공동수상)	Project Tusk팀 (Deal Advisory8, MC2, MC3)	• 고객 상황에 부합하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대 • 법인 내부 Cross-Functional팀 간 적극적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Together Value 실천	300 만원/2 일
		서울대학교 ERP 구축 프로젝트팀 (MC2)	•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Digital 혁신을 이뤄냄 •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컨설팅 수행으로 향후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	300 만원/2 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US IPO 자문팀 - 케이엔터홀딩스, 웹툰엔터 (ICE3, Deal Advisory9)	• 신규 서비스 개발로 고객 및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 Cross Functional팀 간 협업으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로 향후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	300 만원/2 일
		ESG 정보공시 자문팀 - Leading engagements: SK, 삼성바이오로직스, KB (ESG CoE, SG)	• 주요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프로젝트 수임 및 Quality Service • 타 LoB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ESG 자문 시장을 개척하는 Together, Excellence Value 실천	300 만원/2 일
GKP of the Year	개인	문종우 S.Manager (영국/런던 Korea Desk)	• 감사보수 정상화와 새로운 자문 수요 개발을 통해 Korea Desk 성장에 기여 • 영국 외교관과 함께 GKP 해외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잠재고객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100 만원/3 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개인	연세대 TFT 김은희 Director (ICE2)	• 예비 지원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 • 지원자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	100 만원/3 일
Pro bono of the Year	팀	임직원 봉사단 - Outstanding Team (Digital)	•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멘토링 진행 •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For Better의 가치 실현	300 만원/2 일
Innovator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Audit Methodology, Audit Innovation팀 (DPP-Q&RM)	• AuditSay, Smart Footing Tool 개발 및 샘플링 효율화 등 People First - Innovative Change 실천으로 업무방식의 개선에 기여 • 업무 방식의 개선으로 달성된 효율성 확보로 더 높은 수준의 Audit Quality를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 확보	300 만원/2 일
	팀 (공동수상)	K-People 개발팀 (PPC, ITS)	• K-People 개발 및 운영을 통해 People First - Smart Caring을 실천하여 법인 내 소통방식의 개선에 기여 • 구성원들의 편안한 양방향 소통 채널로서 정착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300만원/2 일



"영광의 수상! 이 상승 기운으로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에 기여하겠습니다!"

오상범 본부장 (Tax3)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최우수 본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2023 사업연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Tax3 본부원들 모두의 노력과 김교태 회장을 비롯한 다른 모든 파트너 및 구성원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KPMG Value인 'Together'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 사업연도에도 이러한 상승 기운을 이어나가 법인 성장에 기여하고 본부 구성원들에게도 행복한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법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허승훈 Director (B&F2)

삼정KPMG라는 최고 전문가 집단에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 지난 1년간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해주신 최재범 본부장님 이하 본부 파트너분들과 본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은 상은 앞으로 삼정KPMG 발전에 더욱 기여하라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삼정KPMG가 지금보다 더 고객에게 인정받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Vision 2025를 이루고 DA가 정상에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안세민 Director (Deal Advisory5)

Deal Advisory 대표님으로부터 Professional of the Year 개인 부문에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놀라고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항상 아낌없는 지도 가르침을 주시는 본부장님과 지난 한 해 함께 고생해준 우리 팀원분들 덕분입니다. 팀원분들과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정KPMG Deal Advisory는 반드시 국내 No. 1 M&A 자문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팀원 모두는 삼정KPMG Deal Advisory가 국내 자문 시장에서 정상에서 그 순간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법인의 Vision 2025를 이루고, Deal Advisory가 정상에서 순간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정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여 삼정KPMG가 국내 No. 1 M&A Advisor가 되는 과정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기념 사진



고프로로 사진 찍는 신동주 상무, Photo by 양도원 Manager



바다거북이 with 빨판상어, Photo by 양도원 Manager

바닷속 힐링 그 자체!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KPMG Diving Club'

바닷속을 여행하는 스쿠버다이빙. 삼성KPMG에도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양한 물고기와 아름다운 산호초를 보며 힐링하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가 있다. 바로 KPMG Diving Club이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더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KPMG Diving Club을 소개한다.



스쿠버다이빙 중인 오동희 과장의 모습



크라운 피쉬 (a.k.a. 니모), Photo by 양도원 Manager



함께 안전하게 즐기는 다이빙!

낮선 바다속을 탐험하는 삼정KPMG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KPMG Diving Club. 함께하는 스쿠버다이빙의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평소 접하기 힘든 스쿠버다이빙의 입문을 지원하고 있다. 동호회 회장인 신동주 상무(Tax3)는 “스쿠버다이빙은 바다에서 하는 액티비티로, 비정기 모임으로 진행 중인데요, 바다 수온을 고려해서 여름, 가을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제 다이빙의 계절이 오고 있네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해보려 합니다”라고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을 기대했다.

경험해본 자만이 느끼는 경이로움!

짜к 다이버와 함께하는 공감의 스포츠

이경희 대리(Q&RM-RM):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문득 ‘잠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잠수’ 말고, 건강하고 재밌는 ‘잠수’를 해보고 싶어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제 머리 위로 아름다운 고기떼와 거북이가 지나갈 때 기분이 좋았고 평소엔 제가 쉽게 하지 못할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느꼈어요.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죠!

양도원 Manager(RC): 맞아요, 다이빙을 처음 접했을 때 물고기와 바다 거북 같은 큰 생명체를 만나는 즐거움은 이루 말로 못 해요. 경험이 쌓일수록 물속에서 자유로움과 작은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고 사진에 담을 수 있어요.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다이빙을 즐기다, 동료들과 함께 더욱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했어요.

오동희 과장(LLC 임원실): 다이빙은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하면 더욱 즐겁죠! 저는 자연스레 태어나고 자라는 육지와 달리, 바닷속은 선택과 의지로 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더 넓은 경험을 하고자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의 시끌벅적하고 온갖 소음에 지쳐갈 때쯤 바닷속으로 입수하면 고요함 속에 산소통을 통해 들이 쉬고 뱉는 제 숨소리와 경이로운 수중 풍경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신동주 상무(Tax3): 스쿠버다이빙은 수심을 타고 장비를 이용한 액티비티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버디 시스템, 즉 짝을 지어 다이빙해요. 수중에서 길을 잃거나 공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랍니다. 3명 이상이 될 경우는 팀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여러 번의 다이빙을 통해서 서로의 레벨을 알고 있다면 팀 안에서 더 즐겁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쿠버다이빙은 공감의 스포츠이기도 해요!

필리핀 보홀로 떠난 원정 다이빙! 더욱더 끈끈한 정을 나눠

오동희 과장(LLC 임원실): 동호회에서 해외 첫 원정 다이빙을 다녀오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국내보다 확실히 따뜻하고 수중환경도 더

화려했던 곳이어서 같이 보고 느끼며 공유할 추억이 많이 생겼죠. 특히 동호회에 베테랑 분들이 많으셔서 다이버 횟수가 적은 저로서는 다이빙 스킬도 배우고 든든한 스쿠버다이빙 버디를 만나 행복했어요.

양도원 Manager(RC): 필리핀 보홀 정말 좋았죠! 보홀로 함께 다이빙을 다녀오며 동호회원분들과 더욱 친해지고 끈끈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력직으로 입사한 저는 타본부와 교류가 적었는데, 동호회 활동을 계기로 더욱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로, 해외로 스쿠버다이빙 함께 해요!

이경희 대리(Q&RM-RM):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할 경험을 하고 싶나요?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바다생물과 교감하고 싶나요? 그러면 주저 말고, 우리 동호회와 함께해요. 베테랑 다이버 분들이 많으시니, 초보자들도 걱정 없답니다! 든든한 동호회원분들과 함께 바닷속 여행을 떠나요~!

신동주 상무(Tax3): 바다의 계절은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와요. 아직 바다는 겨울인 셈이죠. 현재 우리 동호회는 여름과 가을에 동해 혹은 제주도에서 국내 다이빙을 나설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해외 다이빙도 계획 중입니다. 스쿠버다이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외부 강사님을 통해 교육도 진행 중이니 초보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이빙 끝나고 뚝뚝 타고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문의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새로운 지구를 느끼고 싶다면 함께 하시죠! 동호회 가입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Tax3 신동주 상무

E-mail. dshin8@kr.kpmg.com

Tel. 02-2112-3027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동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연이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교두보 베트남을 끌어안기 위한 두 나라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과 저렴한 인건비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제조공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에 대해 KPMG 베트남 하노이 오피스에 파견 중인 설영식 S.Manager에게 들어본다.

글 베트남 Korea Desk 설영식 S.Manager E-mail youngsikseoll@kpmg.com.vn Tel +842439461600-6198



Vietnam

가족들과 함께한 베트남 무이네(Mui Ne) 모래사막 투어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베트남 엑스포 참관 모습

자문 용역 Kick-off 미팅 시 KPMG 팀원들, 그리고 고객사와 함께



팬데믹 이전으로 FDI 회복...

88~23년 누계 기준 투자 1위는 한국

베트남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가 금액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베트남의 투자 건수는 2019년 투자 건수에 약 48.6%에 불과했지만, 투자 자본 규모는 2019년의 약 94%에 달했다. 또한, 1988~2023년 베트남 FDI 누계 기준 투자국 1위는 한국이다. 한국은 투자액 총 858억 달러에 달하며, 총액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위는 싱가포르(745억 달러), 3위는 일본(739억 달러) 순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 분야가 부동산이다. 2024년 1월 FDI 유치액 가운데 부동산 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노이시의 대규모 신규 주거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부분 FDI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 고급 아파트에 투자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베트남 부동산연구소(VIRES)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 부동산업 관련 협회 10곳의 대형 투자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도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관련한 문제, 투자행정 절차 등에 대한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정책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에 제한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 지분 제한 여부, 유관기관 승인 요구(조건부 승인 업종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내의 법인설립을 위해 지방기획투자국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발급을 걸쳐 법인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나, 최소 3~6개월까지 예정하고 준비해야 할 정도로 그 진행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또한, 만약 희망업종이 화학, 병원, 교육 등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설립 절차를 위한 소요 기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인 설립이 아닌, 지분거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참여 형태로 베트남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서비스업종의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100% 베트남 로컬 투자자의 명의를 차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베트남인으로부터 100% 지분양수를 받으면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국인 지분제한심사 신규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양수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즈니스상 약속 시간 엄수! 급작스러운 약속은 지양해야

베트남의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한다. 따라서, 한국의 예법, 에티켓에 따라 행동한다면 실례하는 경우가 드물다. 베트남은 사적인 약속이나 만남에서는 Giở dây thun(고무줄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기업인, 정보 고위 공무원과의 약속 시간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급작스러운 약속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상당한 시간(최소한 1주일)을 두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 베트남의 호칭과 경어법은 비교적 복잡해 연령, 지위, 직위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Mr./ Ms.와 같은 영어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베트남 Korea Desk

KPMG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의 지형을 고려해 3개의 오피스(하노이, 다낭, 호치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베트남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하노이 오피스에 설영식 Senior Manager가, 호치민(남부지역) 오피스에는 강신목 Director가 Korea Desk를 담당하고 있다. Korea Desk는 KPMG 베트남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라인(Audit, Tax, Consulting, Legal)을 한국 기업에 소개하고 업무 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업무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업무팀과 한국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다. 이에 베트남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투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정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

사람이나 기업이나 돈이 많을 때 또는 기회가 너무 많을 때 가장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파했다.

교만(hubris)의 대가

경영이란 끝이 없는 장거리 경주다. 자고로 창업(創業)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守成)이고, 수성보다 어려운 것이 경신(更新)이라 했다.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사람이나 조

직이나 패망의 원인은 주로 ‘교만(hubris)’이다. 사람은 보통 자만으로 시작하여 교만을 거쳐 오만으로 치닫는다. 많은 성공한 CEO들의 경우, “이제는 어딜 가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기고만장 큰소리 치는 순간이 바로 내리막길이다. 하늘 높이 올라간 용은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주역의 ‘항룡유회(亢龍有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성공의 복수

과거의 핵심 성공 요인이 오히려 패망의 주요인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 경영학에서는 보통 ‘성공의 함정(Success Trap)’ 또는 ‘성공의 복수(Revenge of Success)’라고 한다. 이는 원래 하버드대 심리학자 랭거(Elen

“성공은 어제 내린 눈이다
새것을 얻고 싶다면 쥐고 있는 건 놓아야 한다”





Langer)가 제시한 개념으로 특히 큰 성공은 실패에 대한 잠재적 경고 사인이다. 과거 수에즈 운하를 성공시킨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인 레셉스가 파나마에선 대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바로 과거의 성공에 집착했기 때문으로 기존의 핵심역량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옮겨가는 소위 가치이동(value migration)이 중요한 이유다.

2천 년 전에 한비자가 기술한 '망징(亡徵)'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말한다. 그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47가지 사례들 중에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다. 기업경영도 이와 비슷하다. 보통 기업의 수명 주기를 30년이라 하지만 요즘에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다. 이게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인다. 자기 얼굴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이 커지면 관료화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No'라고 말하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일전에 국내 리서치 회사가 발표한 <망해가는 회사 판별법 20가지>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예컨대, '화장실이 더럽다', '절차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만들어진다', '전략 실패

의 희생양 찾기에 몰두한다', '그만두는 신입 사원이 많다', '하루 스케줄의 반 이상이 회의다', 'CEO가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활기차다' 등등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다.

성공은 어제 내린 눈이다

장자의 '득어망전(得魚忘筌)'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라"라는 뜻으로 쓰임을 다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다. 새것을 얻고 싶다면 쥐고 있는 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성공의 최대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잠시 성공을 즐기고 위대한 성장을 위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라." 성공의 함정에 대한 『코끼리와 벼룩』의 저자, 찰스 핸디의 말이다.

결국 성공이란 어제 내린 눈이다. 과거 HP의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류 플랫폼(Lew Platt) 회장 또한 "과거에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비결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선 먹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라"고 조언했다.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나보다 우월한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말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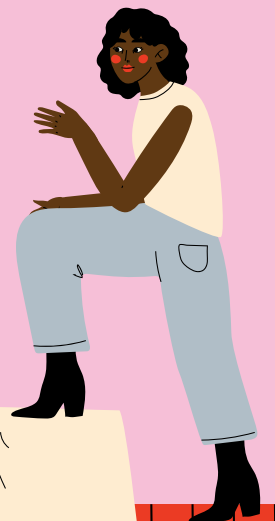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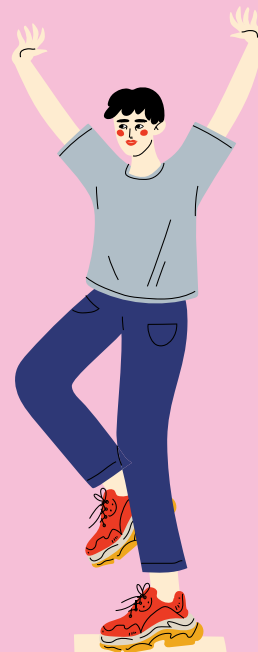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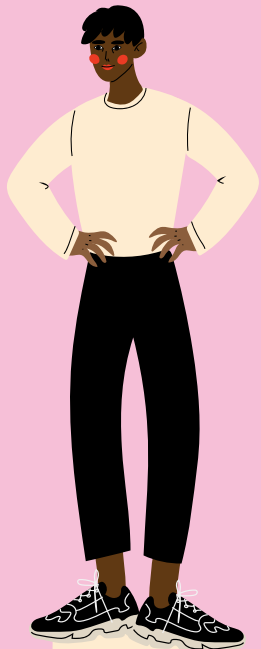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함께 또 같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심리적 자아확장

어떤 순간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오랜 노력 끝에 성취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데 더 나은 자신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오는 '자기확장'의 핵심에 대해서 소개한다.

“내 물건'을 '나'인 것으로 여기면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만족감을 주는 건 소유물을 통한 치장이 아니다.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자아확장이다.”



사람들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분들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자기 성장의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때,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충분한 느낌이 들 때, 성장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좀처럼 의욕이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 자신을 크게 만들면 된다. 심리학자 아서 아론의 '자아확장모델(Self-expansion Model)'은 사람은 자기 확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가까운 관계와 대상을 통해 자기 확장을 이뤄낸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자기 확장을 위한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느끼는 자아확장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직무 안정성을 느끼면 '이제 결혼해야지'라는 일종의 생애 커리큘럼의 과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2024년 현재 '2~30대의 절반가량이 결혼 의사가 없다'는 각종 미디어의 조사 결과처럼, 비혼주의가 드물지 않다. 또한, 각자만의 이유로 결혼 혹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기에는 자연스럽게 반려자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성인 초기는 자아확장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업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취미를 통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그중 하나가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것이다.

연애나 썸 등 로맨틱하지만 한시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상대방의 취향, 성격, 행동이 자신과 한없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반대여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면 나와 상대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나=상대방'이 될 듯한 느낌에서 자아가 확장되는 만족감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자아확장의 경험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한다. 더불어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확장 경험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소유물을 통한 자기 연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 나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자아확장모델의 기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물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연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나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이것은 연장된 자아(Extended self)라는 개념으로, 엄밀히 말하면 자아확장 경험과는 구별이 된다. 연장된 자아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어서 미취학 아동들도 장난감을 가지며 '난 이것도 가지고 있지'라며 우쭐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옆 사람도 아닌 전 세계와, 심지어 로봇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연장된 자아를 치장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일이 생기고, 연장된 자아끼리 겨루다 보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기도 한다.

본연의 자기확장 경험으로 돌아가기

너무나 예상 가능하듯이, '내 물건'을 '나'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불행이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한다.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한다고 내가 고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만 과시하게 된다. 마치 돈으로 자존감을 사는 것처럼 어떤 것을 택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보일지에 집중한다.

만족감을 주는 것은 소유물을 통한 치장이 아니다.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자아확장이다. 소중한 사람과 가족에게 내가 가진 것을 퍼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커지는 느낌을 나누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변영훈·김이동·박상원 대표 승진



변영훈 대표



김이동 대표



박상원 대표

5월 1일자로 ▲변영훈 부대표(감사 부문) ▲김이동 부대표(재무자문 부문) ▲박상원 부대표(컨설팅 부문)가 대표로 승진했다.

감사 부문 변영훈 대표는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KPMG에 입사했다. 이후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쳤다. 감사품질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 4월 감사부문 대표로 선임됐다.

재무자문 부문의 김이동 대표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2000년 삼성KPMG에 입사해 삼성투자자문 본부장, 재무자문부문 5본부장을 역임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M&A 전

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은 'M&A센터' 리더도 겸임했다. 지난해 10월 탁월한 업무 성과로 재무자문부문 대표에 중용됐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로 직급 승진하면서 '최연소' 대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컨설팅 부문의 박상원 대표는 196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후 아서앤더슨, 베어링포인트, AT커니를 거쳐 2008년부터 삼성KPMG의 컨설팅 업무를 주도해 온 '컨설팅통'이다. 새로운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부문을 이끌고 있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서비스 리더들을 중심으로 품질 경영 실천과 더불어 자본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RODUC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Digital 박성호 상무 영입



박성호 상무는 삼성KPMG, 안진회계법인, A.T Kearney, EY Parthenon, PwC 컨설팅에서 금융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글로벌 금융 전략 및 디지털 채널 전략 전문가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삼성KPMG의 Consulting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성호 상무는 "주니어 시절을 삼성KPMG에서 보낸 저에게 현재 삼성KPMG의 성장과 변화가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좋은 회사로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 저는 디지털과 글로벌 금융에서의 성장을 통해 삼성KPMG 제2의 도약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경력

· PwC 컨설팅 (2021~2024년) · EY Parthenon (2018~2021년) · A.T Kearney (2016~2018년)
· 안진회계법인 (2013~2015년) · 삼성KPMG (2010~2013년)

SAP와 파트너십 체결, 비즈니스 협력 강화 KPMG 글로벌 SAP 리드 파트너 방한으로 협업 방안 모색



KPMG 글로벌 SAP 리드 파트너
Hendrik Thörner

삼정KPMG가 SAP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SAP와의 활발한 교류와 비즈니스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11~12일에는 KPMG 글로벌 SAP 리드 파트너인 헨드릭 토너(Hendrik Thörner)가 방한했다. 이번 방한을 통해 헨드릭 파트너는 각국의 SAP 비즈니스 공유 및 SAP 비즈니스 협력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SAP 고객사를 방문하는 등 삼정KPMG와 SAP 비즈니스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헨드릭 파트너를 만나 SAP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의미와 향후 기대하는 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헨드릭 파트너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방한의 목적은?

SAP 리드 파트너로서, 각국 멤버펌들이 SAP 비즈니스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인지 이해하고, 파악 중입니다. 그중 한국은 강한 SAP 프랙티스(Practice)를 가지고 있는데, 본 방한을 통해 한국이 어떤 고객과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실행하는지 살펴보고 KPMG 글로벌과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 SAP의 CEO 등 지역별 SAP 관계자들을 만나 SAP가 지역별로 어떻게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Q. KPMG와 SAP가 가진 파트너십의 의미는?

파트너십(PartnerEdge Agreement)을 통해 KPMG와 SAP는 모든 업무 영역을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지난 20년간 KPMG가 SAP의 감사인으로 있어 업무 협력이 불가능했지만, 감사 계약이 종료된 지금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전략적인 아웃룩(Outlook)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SA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KPMG의 SAP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킬 동력이 되고, 나아가 고객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차원에서 KPMG와 SAP는 어떤 협업을 준비 중인가?

현재 각 멤버펌들이 자국 내에서만 SAP 비즈니스를 실행하나, 앞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인 아웃룩을 구성해 SAP와 고객 모두에게 '하나의 KPMG(One KPMG)'라는 인식을 심어주 고자 합니다. 이는 KPMG가 전략 구상과 더불어 ESG, AI 등 주요 분야에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협업하고 있음을, SAP와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AP와 협력하는 데 있어 KPMG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삼정KPMG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SAP 비즈니스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SAP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SAP 프랙티스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정포럼, '초격차 - 리더의 질문' 주제로 권오현 前 회장 강연 나서

지난 4월 17일 FY2024 첫번째 삼정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삼정포럼은 前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연사로 나서 '초격차 - 리더의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권 前 회장은 강연을 통해 개발자에서 최고 전문경영인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민하고 도전하며 얻는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었다. 권 前 회장은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인사이트를 제시하며,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훌륭한 부하 직원을 많이 뒀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얻는 리더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뤘다.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시너지가 줄어들을 강조했다. 'Vision 2025'를 앞두고 초격차 조직으로 이끌기 위한 삼정KPMG 리더들의 질문에 진솔하면서 임팩트 있는 답변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업무공간의 혁신, 'GFC 15층 & 성공빌딩' 스마트 오피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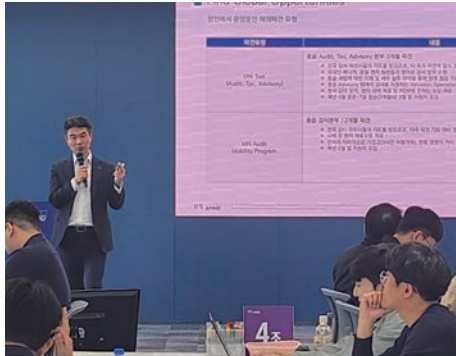
삼정KPMG는 현재 사용 중인 GFC 7개 층 스마트 오피스에 이어 GFC 15층에 신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정KPMG 별관으로 사용 중인 성공빌딩도 스마트 오피스로 변화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GFC 15층 신규 오피스 공사를 시작하고,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성공빌딩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성공빌딩은 1층 전체를 라운지화하고 라운지 한쪽 면은 오픈형 도서관으로 변경한다. 성공빌딩은 GFC 스마트 오피스와 같이 모든 Function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단, 파란행복 카페는 성공빌딩 공사 기간 중지되며, 구내식당은 편의를 위해 최대한 길게 운영할 예정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롭게 변화될 스마트 오피스를 영상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GEP 14기 우수자 대상 해외연수 오리엔테이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4월 18일 GEP(Global Elite Program) 14기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GEP 런던 해외연수 출국 전 해외파견 제도의 이해와 셀프리더십 향상, 그리고 GEP 동기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준비된 사전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GEP 14기 우수자 38명이 참여하였으며, Globalization SG 위원장 신경철 부대표의 Global Opportunity(GO) 안내를 시작으로 강점진단을 통한 셀프리더십 워크숍과 우리들만의 테마여행 'Our London Story' 투어맵을 기획하는 조별 활동이 진행됐다.



MICROSOFT 365 COPILOT 실습 교육 진행

삼정KPMG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Microsoft 365 Copilot'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 GPT 협회 안현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MS 주요 프로그램인 PPT, Word, Excel 등 MS 주요 프로그램에서의 Copilot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AX 산업별 외부 전문가특강 제약·바이오 부문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삼정KPMG가 지난 4월 29일 'Tax 산업별 외부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NH 투자증권의 박병국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황 및 트렌드와 IRA 법안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삼정KPMG 임직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임직원 대상 갤럭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시

삼정KPMG가 지난 4월 11일 임직원 대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의 편리함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삼성 갤럭시 컨설턴트와 ITS가 연사로 나섰다. 강연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숨은 기능을 알아보고, 일상과 업무에서 스마트폰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 생활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tice]

“세미나 개최 소식 전합니다!”

‘제9회 ACI 세미나’

일시: 2024년 7월 4일(목)

장소: 남산 그랜드 하얏트

문의: ACI 이민형 이사 (minhyunglee@kr.kpmg.com, 02-2112-7854)



55th Anniversary

People First Concert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KSPO DOME

*티켓부스오픈 - 오후 3시, 공연장 입장 - 오후 5시~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